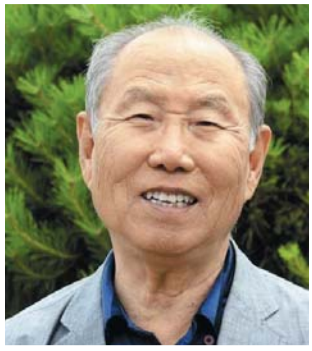


# 기부천사 권오록 전 서울 은평구청장

## “안동권문의 큰 영광이자 자랑스러운 일”



할아버지 권대홍

아버지와 어머니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글귀(주사 김정희 글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기념촬영



녹조근정훈장(1989)

권오록(權五鹿, 추밀공과 정헌공 계, 35세) 전 서울 은평구청장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푸르메 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아무도 모르게 10억여원을 기부해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족친이 졸업한 서울 종로구 계동 대동세무고에는 “권오록 장학금”이 생겼다. 2016년과 이듬해 각각 기부한 1억 원이 모태가 되어 대동세무고 학생 10여명에게 매년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 조선일보 2019년 7월 3일자 1면과 12면)

족친은 기부를 하면서도 “내 세 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밖으로 알리지 말라”며 철저하게 신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온 얼굴 없는 기부자였다. 그런데 그 얼굴 없는 기부자의 신원이 드디어 밝혀졌다. 바로 권오록(85) 족친이었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족친은 “너무 늦게 깨달은 기부의 기쁨을 만인과 나누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내 아들과 딸, 손주뿐 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이 한 일을 가끔은 왼손이 알아도 된다는 게 새지 룬이 됐다”고 했다.

족친은 어떻게 거액의 돈을 기부하게 되었을까. 족친은 “내 기부 인생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인물은 아버지”라고 말한다. 고향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갈현리이다. 아버지 권영국(權寧國, 34세) 응은 백학면에서 부농(富農)이었다. 족친은 1934년 1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권대홍(權泰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단발령을 내려 상투를 자르라고 하자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동네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이려 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목을 쳐서 죽이는 줄로만 알았는데 할아버지의 그 당당한 기세에 놀라서인지 상투만 잘라서 다 행히 살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할 아버지는 강단 있고 올곧은 분이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겨울마다 곁간을 열어 마을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2개짜리 교실이 딸린 감수소를 열려 글을 배우지 못한 아동들에게 배울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아버지는 6.25전쟁으로 평택으로 피난을 가서 재산이 없다고는 만년필과 은반지 하나뿐이 있을 때도 주변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동네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글을 가르치면서도 아버지는 단 한번도 혼계조로 어떻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없이 보여준 살아있는 교육이 지금의 족친을 이끄는 것 같다고 술회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안동권문의 큰 영광이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안동권문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킨 사건인데 틀림없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余慶)이라고 했던가. 족친의 자

산은 1960년대 강남에 사둔 땅값이 오르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당시 평당 2만원에 사둔 땅이었다. 그럼에도 족친은 운이 좋아 생긴 돈이라고 하며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족친은 지난 3년여 동안 대한적십자사에 2억, 어린이재단에 2억, 공동모금회에 1억, 대동세무고에 2억, 푸르메재단에 2억, 서울시 시우회에 1억 등 총 10억여원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는 지금도 구형 2G 폰을 사용하고 있고 승용차는 17년째 타고 다닌다. 복지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족친의 성품은 소탈하고 검소하기로 유명하다. 족친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34년 근무하고 1996년 6월 은평구청장을 맡으며 정년퇴직했다. 족친은 평생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안동권문이라는 자긍심으로 안동권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며 안동권문에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삶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기분을 다 해서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평소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글귀는 천하일등충효(天下一等忠孝) 세간양건사경독(世間兩件耕讀)으로 전하에서 제일은 충효이고 세상에서 두 가지 일은 밭 갈면서 독서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편집국장 권영환

### 정조공파 대학생 장학금 지급행사 개최

안동권씨 정조공파 종회(회장 권영택)에서는 7월 23일 장학생 23명과 전직 종회장, 종회 부회장, 각 부장 등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15회 장학금 지급 행사를 가졌다. 이날 권영택 회장은 인사말에 2005년 9월 127명의 장학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580명에게 1억 8천3백2십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파종회 자녀들의 면학분위기가 조성 및 승조사상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민으며 장학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특히 해마다 장학금 지급에 이어 승조사상 고취에 대한 보화강좌의 시간을 가졌지만 올 해부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조님 묘소와 남중공단소, 그리고 우리 정조공파 파조님 단소를 참배토록 하겠다는 인사와 더불어 수백쪽짜들이 살고 있지만 시조님의 묘소를 모시는 성씨는 극히 드문 일인데 우리 시조님은 1,000여년이 지난 실제 묘소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자손된 우리로서는 긍지와 자람이며 장학생들에게 더욱



더 정진해서 스스로의 발전과 가정 그리고 문중 나아가 사회에 큰 기여가 되라는 인사말로 끝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시조님 묘소, 남중공단소, 우리 정조공파 파조님 단소를 참배하고 목향에서 불고기 정식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 월소 윤태희 2019 대한민국 전통공예 대표작가 초대전

월소 윤태희(권태강 검교공과 회장 부인) 추사체 전문 작가가 2019 대한민국 전통공예 대표작가 초대전에 초대되었다. 초대전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전통공예협회가 주최하고 7월 17일(수)부터 22일(월)까지 종로구 인사동길 34-1 인사아트프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윤태희 작가는 추사체로 수위청죽무어水爲淸卽無魚인 위찰죽무어人爲察卽無友라 쓴 작품을 선보였다. 이는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친구가 없다는 말이다. 즉 깨끗한 1급수에는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움직임이 다 드러날 뿐만



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지난 7월 21일 일요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원 20여명은 297차 정기산행으로 여주에 있는 영릉 및 명성황후 생가와 신록사를 다녀 왔다. 이번에는 세종대왕 영릉

등을 방문하는 역사탐방이었다. 서울산악회에서는 매월 3째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계시며 산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동권씨 서울산악회장 권중훈



### 권순태 제8대 안동대 총장 취임

국립안동대학교는 6월 19일 오전 11시, 교내 국제교류관에서 제8대 권순태(權純泰, 부정공과 37세)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권 총장은 취임사에서 “적극적인 교육혁신과 자율적 대학 경영으로 2030년까지 최고 수준의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미래를 위해 좀 더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대학 밖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두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상주 출신인 권 총장은 경북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1993년 안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뒤, 기획연구부실장, 농업과학기술연



구 소장, ACE사업 추진단팀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 단장, 한국자원 식물회회장, 경상북도지역대학산학협력단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30일까지 4년이다. 부인 안재경(安在卿, 57)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딸 권효정은 청와대사랑방에 근무하고 있으며 아들 권용준은 대학 재학 중이다.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주한중국대사관과 한중교류 간담회 개최

한중도시우호협회는 16일 주한중국대사관 초청으로 서울 중구 명동 동보성 중식당에서 주한중국대사관과 한중 공공교류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영광 부대사는 “한중 우호를 위해 한중도시우호협회의 한중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공공분야의 교류 활성화가 한중 우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도시우호



협회는 다음주 기업인 교류단 베이징 방문 행사와 10월 하달인 안중근 동양평화 문화 축제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정**

**▲ 권중동** 전 노동부장관은 지난 4월 20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회랑운동장에서 재경 안동고등학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하여 축사

**▲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 7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

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으로 선출

**▲ 대구중** 친회 보화강좌

일시 : 2019년 8월 28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대구향교

강사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영준 교수, 법학박사

**▲ 권방자** 재경안동향우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고문으로 추대

**▲ 울산청** 장년회 정기월례회 및 아우회 성황리 개최

일시 : 2019년 7월 21일 오전 11시, 장소 : 상락원

웃놀이, 제기차기, 족구게임 등

**▲ 권상희** 재경안동향우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7월 25-28일 중국국제우호연락회(회장 천위안)와 중국어협회(회장 자오싱우) 등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 방문

**▲ 권갑하** 시인, 한국문인협회 제58차 정기총회에서 부이사장에

**▲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정부혁신평

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 제32회** 학생발명전에서 권효은(대전서중 3학년) 학생과 기부장관상 수상

www.semyung.ac.kr

# 대학원의 참대학 시명대!

## 학부생경험중심교육은 세상에 꼭 필요하다

**학생경험중심 NO.1**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 안내 민송CEO 과정**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은 지난 1996년 8월 제1기 고위관리자과정 모집을 시작으로 2006년 8월 10기 수료까지 총 443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였으며, 다변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신규과정으로 민송CEO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민송CEO과정은 보고 설람자이신 故 扈松 권영민 박사님의 교육이념을 받들어 지역사회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최고 경영자 및 고위행정관리자를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수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8년 3월 현재 제12기 과정에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우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